



Slow Food
2024.11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두에게

slow food

LETTER | COLUMN | REPORT | ARK OF TASTE | PEOPLE | CONVIVIUM



© 2024.terramadresalonedelgusto.com



슬로푸드 소식을 모아 전하는 '슬로푸드' 섹션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와 「슬로매거진달팽이」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슬로푸드 운동의 현장은 물론 국제슬로푸드협회의 여러 가지 소식과 슬로푸드를 실천하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아우르며, 매달 다양한 슬로푸드 뉴스, 인물 인터뷰, 활동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www.slowfood.or.kr 문의 02-737-1665



‘2024 테라마드레’를 다녀와서

지난 9월 말에 열린 ‘2024 테라마드레’의 여운이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에 처음 참여했을 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사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올해 처음 참여한 분들도 그때의 저와 같은 마음일 듯해 성심껏 도왔습니다. 올해는 테라마드레가 20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테라마드레에 참여하려고 오랜 기간 준비하면서 엄청난 양의 콘퍼런스 와 맛 워크숍이 기획되는 과정을 보며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60여 명이 신청했는데, 저는 충남 여성 농업인이 중심인 일행들과 선발대로 출발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지역 알프스의 아름답고 웅장한 대자연을 눈으로 보면서 압도당하고, 직접 땅을 밟고 호흡하면서 위대한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운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부러움을 안고 그 자연 안에서 파괴와 착취의 방식이 아닌 돌봄과 상생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농업과 가공을 하는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생산자들을 만났습니다. 지역의 맑은 물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송어 양식을 하는 여성 생산자, 엄마와 딸이 함께 농사지는 포도로 유럽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가는 와인 생산자와 알프스 푸른 초원의 풀을 먹여 키우는 60여 축산 농가, 매일 아침저녁 우유를 공급받아서 만드는 치즈 생산자 협동조합, 명품과 패션의 도시 밀라노 도시 한가운데서 명품 쌀을 생산하는 농가까지 한 곳 한 곳 깊은 감동과 영감을 받으면서 돌아보았습니다.

‘20주년’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 행사인 터라 큰 기대를 갖고 도착한 테라마드레 행사장은 ‘2022년 테라마드레’ 규모만큼 도 안 되는 듯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전까지 풍성하게 차려졌던 음식들은 소박함을 넘어 초라한 밥상처럼 느껴지게 바뀌었고, 화려했던 행사장도 간소화됐습니다. 실망 아닌 실망감을 가지고 행사장을 돌아보다가, 이번 행사의 핵심이 되는 주제관에서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우리가 자연이다(We are Nature)”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돌아보고, 인간도 자연 구성원의 하나이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된 이질적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주제관은 ‘인간과 자연, 농생태학’이라는 주제를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전달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순간 어느 축제에서 이런 섬세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걸으며 보이는 화려함을 찾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테라마드레에서 무엇을 기대했으며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자 한 것일까’라는 질문이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테라마드레가 던지는 메시지보다 시각적인 조형물로 가득 채워진 행사를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이번 개막식에서 카를로 페트리니 전 슬로푸드 회장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에 목소리를 내고, 낡은 체계에 저항하고, 우리가 직접 생산의 주체가 되어 거대 자본에 맞서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드워드 무키비 슬로푸드 회장은 이번 테라마드레에서 얻은 영감과 연대의 힘으로 각자 지역에서 슬로푸드 운동을 이끄는 적극적인 활동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를 지키는 운동이며 테라마드레에서 만들어지는 모임과 공동체 의식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나리오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20년을 맞은 테라마드레는 대회 주제와 메시지에 따라 기획되고 만들어집니다. 평소 개발이 아닌 보존을 이야기하고, 소비보다 절약, 편리보다 불편을 이야기하지만 테라마드레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과연 말만이 아닌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한 듯 화려하게 꾸며진 얼굴을 기대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꼭 채워진 속을 들여다보는 데 마음을 다해야 테라마드레 행사를 즐길 수 있고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슬로푸드 운동을 하는 우리 또한 진정성 있는 방향을 찾아야겠습니다. ●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강현진**에게



© 2024. terramadresalonedelgusto.com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는 ‘슬로푸드’의 마음

글 김종덕(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장) 사진 2024.terramadresalonedelgusto.com



© 2024. terramadresalonedelgusto.com

오랫동안 슬로푸드 운동을 해왔기에 사람들에게서 슬로푸드 운동이 어떠한 운동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따뜻한 운동”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의 따뜻함은 전 세계 슬로푸드인이 총출동하는 행사 ‘테라마드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슬로푸드 국제본부는 이전 테라마드레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참가한 3000여 명의 외국 대표단에게 5박6일 동안 숙박, 음식,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그밖에도 지내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배려 해주었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이 따뜻한 운동임을 보여주는 핵심은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중시되고 강자독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슬로푸드 운동은 다양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취지에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보는 대상, 즉 약자에게 우선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맛의 방주’와 ‘프레시디아’ 프로젝트를 통해 사라지는 종자와 음식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중시합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기업농의 확산 속에 위기에 직면한 가족농들을 지키기 위해 ‘국제 가족농의 날’을 지정해 가족농의 소중함을 알리고



© 2024. terramadre salonedegusto.com

지키는 데 힘씁니다. 가족농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영농의 주체이자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전 세계 곳곳에서 생계와 생존을 위협받는 원주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원주민 테라마드레’를 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세계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특히 아프리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로 ‘아프리카 텃밭’이 조성되었습니다. 원조라는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자조 능력, 지역 생물 다양성 보호, 먹을거리 공동체 복원에 크게 기여하는 아프리카 텃밭은 처음에는 1000개를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수천 개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일찍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슬로푸드 청년(Slow Food Youth)’을 조직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슬로푸드 운동은 이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 36세의 아프리카 우간다 청년 에드워드 무키비를 국제슬로푸드협회 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슬로푸드 운동이 청년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공정한 음식을 먹는 세상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지향에서도 따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특히 좋은 음식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을 알리고 그 권리, 즉 식량권의 실현에 힘씁니다. 깨끗한 음식을 통해 망가지고 있는 환경,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바로잡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공정한 음식을 통해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말하고, 이들에 대한 착취나 희생이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힘씁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따뜻함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 지금 인류가 직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슬로푸드 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



© 2024. terramadre salonedegusto.com

© 2024. terramadre salonedegusto.com



우리가 자연이다! ‘2024 테라마드레’ 참관 보고서



‘2024 테라마드레 살로네 델 구스토(Terra Madre Salone del Gusto)’가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렸다. 120개국에서 온 3천여 명의 참관인은 ‘우리가 자연이다’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나아갈 방향에 공감대를 이루며 슬로푸드 운동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의를 체험했다. 올해는 선진농업 해외연수로 온 충남 여성농업인 16명이 슬로푸드 회원 40명과 함께 테라마드레에 참가했다. 농업인으로서 이탈리아 농업 생산지와 테라마드레를 체험한 이야기도 담았다.

정리 고지현(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충남여성농업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원들



※2024 테라마드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2024.terramadresalonedelgusto.com/en/>



1 세계 3천여 명의 참가인이 파르코 도라에 설치된 지구본 아래 모였다. 2 우리 한국협회 회원들은 준비해간 한복을 입고 강강술래를 돌며 세계인들 속에서 개성을 드러냈다. 3, 4 테라마드레 장소 파르코 도라 앞에 모인 한국 참관단 일행 5 테라마드레에서 참관단에게 제공한 식사. 세 가지 요리를 곁들 수 있고 빵, 과일, 요구르트, 물은 제한 없이 제공되었다.

REMEMBER 01 개막식, 슬로푸드 현대의 정신

테라마드레 개막식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참관인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참여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올해는 이전 행사와 달리 모든 것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는데,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흥분되지 않는 시간이 없었다.

슬로푸드 행사다 보니 무엇보다 제공되는 음식들에 관심이 갔다. 점심, 저녁 하루 두 번 제공된 식사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식당 입구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식권을 확인한 뒤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종이 코인과 포크, 종이 테이블 매트가 든 봉투를 줬다. 우리 협회에서는 미리 수저를 지참했는데, 운영상 어쩔 수 없었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슬로푸드 운동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반면 테이블 종이 매트에는 슬로푸드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적혀 있어 식사 때마다 다시 한번 음식과 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초대 국제슬로푸드협회 회장이로서 여전히 많은 존경을 받는 카를로 페트리니와 2대 회장인 에드워드 무키비의 인사말도 멋졌다.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소개하며 개막식의 기억을 갈음한다.

“농부, 목축업자, 어부들의 유엔이라고 불리는 테라마드레가 슬로푸드의 정신을 입법으로 세울 수 있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하며, 미래 변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젊은이들을 세워야 한다.” by 카를로 페트리니 국제슬로푸드협회 초대 회장

“우리는 참관인으로 왔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적극적인 활동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 슬로푸드 운동의 정신을 지역사회와 공유합시다.” by 에드워드 무키비 국제슬로푸드협회 회장



● 테이블 종이 매트에 적힌 내용

- l Menu for Change(변화를 위한 메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의 중심에 음식을 두자.
- l 식품생산은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 l 우리의 선택으로 기후 변화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l 실천 방법: 라벨을 읽고 소규모로 생산된 지역 제품을 선택한다.
- l 저철 식재료를 먹고 적은 양의 고품질 고기를 1주에 2~3회만 섭취한다.
- l 콩을 재발견하고 채소를 더 많이 먹는다.
- l 물을 아낀다. 가장 가까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한다.
- l 재사용, 재활용에 적극 나선다.
- l 식재료 쇼핑하는 시간을 즐긴다.

REMEMBER 02 주목할 만한 콘퍼런스와 맛 워크숍

한국 참관단은 콘퍼런스와 맛 워크숍에서 전 세계 슬로푸드 네트워킹의 생산자, 요리사, 교육자, 전문가의 발표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의 현실에 투영해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믿는다.



01 농생태학 콘퍼런스

이번 테라마드레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인 만큼 참관단은 집중해서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자의 발언이 길어 토론자들의 발표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과 농생태학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웠다. 국제협회에서는 농생태학에 맞는 슬로푸드 농장 기준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생태학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와 함께 농업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농생태 농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농생태 농업 농장과 무농약 유기농 인증 농장이 어떻게 다른지 알리는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슬로푸드 농장 기준에 준하는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있고 앞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곳이 있을 것이므로 한국 협회에서도 이런 농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후위기, 자연, 그리고 우리> 콘퍼런스

2 <농생태학, 자연의 편에 선 농업> 콘퍼런스

02 '에더블 스쿨야드 프로젝트' 20주년

'에더블 스쿨야드 프로젝트(The Edible Schoolyard Project)'를 처음 시작한 엘리스 워터스가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했는데 불참하는 바람에 참관인 모두 잠시 실망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에더블)' 학교 텃밭을 이끌어온 베르타조니 교수와 로마노 씨가 나와 텃밭이 학생들의 삶에 미친 좋은 영향을 이야기하며 감동적인 콘퍼런스로 만들어주었다. 초등학교 때 처음 학교 텃밭을 시작했던 학생 두 명이 멋진 청년으로 성장해 토론자로 나왔는데, 교사가 되어 '에더블 스쿨야드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해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03 입양 동포, 나의 뿌리, 그리고 한국 맛 워크숍

2023년부터 국제슬로푸드협회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실현된 맛 워크숍이다. 김치, 비빔밥, 김치전, 간장, 고추장, 된장국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맛을 누룽지차와 함께 소개하고 맛보는 시간이었다. 장단콩 된장국과 김치를 소개한 박정희 회원, 김치전과 송늬를 준비한 박세정 회원, 주방에서 음식 준비 전반을 돕고 사전 회의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명희·오정선 회원·이혜경 회원,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전통음식을 널리 알리고 있는 유희림 회원이 애썼다. 워크숍에 참석한 입양아 김철규 씨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생산하며 지역의 오래된 포도나무 종자를 찾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데 “농업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었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존재의 뿌리를 느낀다”고 말했고, 이탈리아 입양협회 회장 카를로는 “한국 음식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준다”고 말해 맛 워크숍에 참석한 이들을 감동시켰다.



- 1 주방에서 음식 준비에 애쓴 박세정·오정선·김명희·박정희 회원
- 2 맛 워크숍에서 만난 유희림 회원과 주방 메인 셰프들
- 3 맛 워크숍에서 이번 테라마드레 인수를 총괄한 정상신 목사가 통역 중이다.
- 4 맛 워크숍에 나온 비빔밥과 김치전



04 꿀벌의 힘을 존중하는 생명역동농법의 양봉 이야기

토론자로 나온 생명역동농법 양봉가 엔리코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양봉을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생태농업의 일종인 생명역동농법이 발달했는데 유기농과 공통점이 무척 많지만 토양과 식물, 가축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영적이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주체라고 인식한다. 엔리코 역시 꿀벌이 지닌 생명의 힘을 믿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양봉을 한다고 했다.

◀ 워크숍에서 제공된 과자는 꿀을 넣어 만들었다. 사과주스도 벌이 수분해 생산된 사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맛이 달랐다. 산미가 강하거나 짠맛이 나는 사과주스도 있었다. 시식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농산물을 먹는 데 꿀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05 슬로 빈(Slow Bean)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콩 요리를 만들어 일상적으로 먹어왔다. 서양인들은 콩을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식물성 단백질로 재조명하고 그 잠재력과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슬로 빈스(Slow Beans) 네트워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나로 묶어 식탁에 매일 한 가지 콩 요리를 올리자고 주장했다. 콘퍼런스 끝에 손정희 지부장과 이경자 회원이 토종 콩 세 알 이야기가 담긴 노래와 춤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콘퍼런스 끝에 우리 회원들이 나와 간단히 콩 이야기와 춤을 곁들였다.

06 라바짜박물관에서 열린 커피 워크숍

라바짜(LAVAZZA) 커피는 대표적인 이탈리아 커피 회사다. 1895년부터 가족경영으로 시작해 현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하고 2020년부터는 탄소제로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커피 회사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에서 슬로푸드커피연합과 협업해 생산한 유기농 커피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국제협회에서 추진하는 슬로푸드커피연합은 소규모 커피 생산 농가가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커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생물 다양성 보존, 인권과 노동권 보호, 농업생태학적 원칙을 지키는 교육 등을 활동 목표로 삼는다. 그러려면 이런 활동에 책임의식을 가진 커피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1



2



3

- 1 시음자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곁들인 다과를 다채롭게 제공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 2 라바짜 커피 전문가가 동일한 원두(쿠바 티에라 커피)를 3가지 방식으로 추출해 시음할 수 있게 제공했다.
- 3 라바짜 커피 워크숍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07 슬로푸드 가든과 농장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슬로푸드 가든. 규모는 작지만 흙, 물, 영양, 식물 다양성, 섞여있기, 식물 배치 등을 기준으로 삼아 조성된 텃밭이 작지만 인상적이다. 슬로푸드 농장을 최대한 압축 요약해 말하자면 슬로푸드 정신, 철학, 농생태학, 음식의 중심 요소인 땅·물·공기, 생물 다양성, 경관, 영농지식, 건강, 즐거움, 관계, 나눔을 중시하는 가족농이다. 살아 있는 농장은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영양을 공급하고 슬로푸드 교육이 이뤄지고 서로를 옹호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슬로푸드는 이 농부들의 목소리를 증폭하여 이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활동가, 요리사, 소비자, 장인, 어부, 동료 농부로 구성된 글로벌 커뮤니티와 연결하고자 한다. 산업농 시스템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모든 농업을 생태농업 슬로푸드 농장 방식으로 바꿀 순 없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반드시 전환되어야 하므로 수만 개의 슬로푸드 농장을 만드는 목표를 향해 가야겠다.

1 행사장에 설치된 슬로푸드 가든. 수분, 햇빛, 토양 등 생육환경을 기준으로 식물을 심었다. 2 이탈리아 전역에서 생산되는 견초. 견초의 맛에 따라 유제품 맛이 달라진다. 3 슬로푸드 농장 외관. 내부에는 8가지 슬로푸드 농장 원칙을 제시하고 게임과 투표 방식으로 농장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게 설치해두었다.

프레시디아를 비롯해 사과협동조합, 포도주, 축산가공품을 둘러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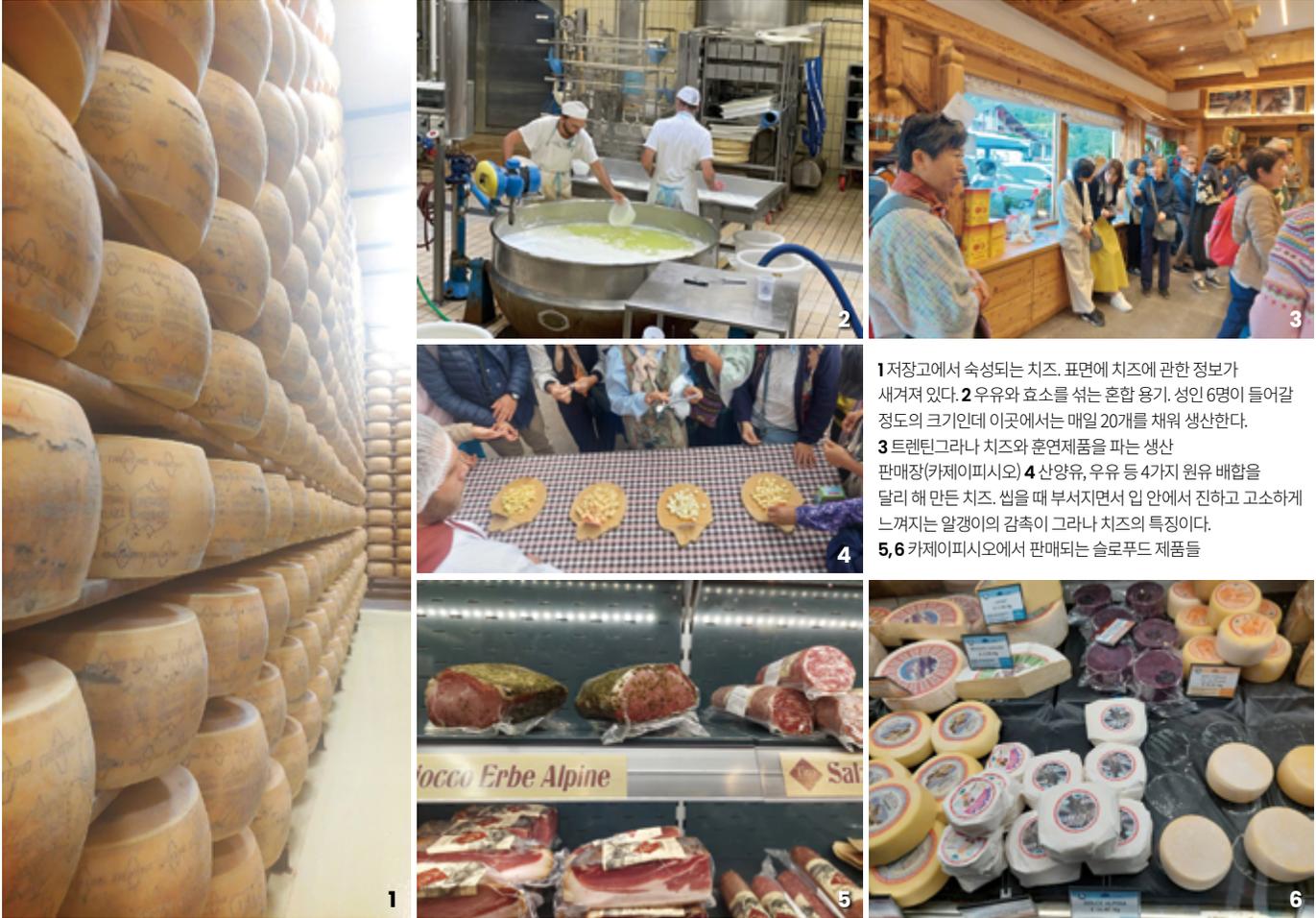
08 프레시디아 부스, 이탈리아 마켓

이탈리아 슬로푸드 생산자를 위한 부스가 마련되고 그 안에 197개의 '맛의 방주'와 프레시디아 생산자들, 375개의 슬로푸드 생산자들이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이탈리아 전역의 슬로푸드 생산품과 프레시디아 물품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한 자리였다. ●

다시 가보고 싶은 이탈리아 슬로푸드 농가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지역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농촌을 볼 수 있었다.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농업이 경관이 되는 이탈리아, 널리 알리고 싶은 생산지를 다녀왔다.

정리 고지현(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충남여성농업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원들



1저장고에서 숙성되는 치즈. 표면에 치즈에 관한 정보가 새겨져 있다. 2 우유와 효소를 섞는 혼합 용기. 성인 6명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데 이곳에서는 매일 20개를 채워 생산한다. 3 트렌티그라나 치즈와 혼연제품을 파는 생산 판매장(카제이피시오) 4 산양유, 우유 등 4가지 원유 배합을 달리 해 만든 치즈. 씹을 때 부서지면서 입 안에서 진하고 고소하게 느껴지는 알갱이의 감촉이 그라나 치즈의 특징이다. 5, 6 카제이피시오에서 판매되는 슬로푸드 제품들

1 트렌티그라나치즈협동조합, 발디핀므

트렌티그라나 치즈를 생산한 지 올해 100년이 되는 조합이다. 인근 농가에서 갓 짠 우유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받아 치즈를 만든다. 아침 저녁으로 우유의 성분이 달라 섞어서 사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그라나 치즈는 소금물에 20일 담그고 9개월 이상 숙성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치즈 표면에는 생산 날짜, 생산 농가, 생산 시설 번호, 지역의 DOC(품질 관리 인증; 소들이 먹는 목초, 젖소의 건강 상태, 사육 환경, 원유 상태, 제조 상태, 포장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등이 찍혀 있다. 치즈협동조합협회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협동조합 농가의 치즈 생산을 관리해 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돕고, 농가에서 생산된 치즈를 납품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돌려준다. 치즈 농가 바로 옆에 치즈, 살라미, 달걀 등 식품을 파는 상점을 운영해 지역에서 생산된 그라나 치즈를 구매할 수 있다. 트렌티그라나의 대표 치즈는 100g에 1.5유로, 우리 돈으로 2300원 정도다. 조각 치즈는 일반 마트에서 살 수 있지만 덩어리는 협회를 통해서만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협회에서 다른 지역 치즈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협상하기 때문이다. 회원들을 위한 협회 활동 중 하나다.



2 비난테 송어 양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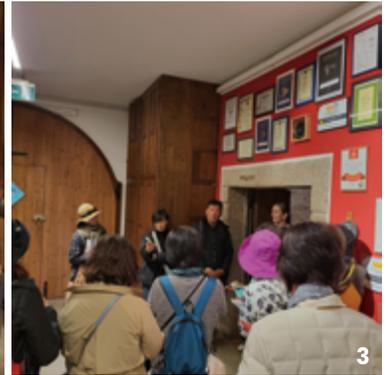
회원들에게 많은 감동과 환대를 선사한 곳이다. 현재 비난테 양식장을 운영하는 암네리스(Amneris)는 교사직을 접고 2013년 남편, 딸과 함께 농업회사를 발족했다. 1900년대 초반 외조부가 시작해서 1960년대 부모님이 물려받은 양식장 가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청정 지역에서 연중 7~10°C의 수온으로 일 년 내내 연어과에 속하는 갈색 송어와 북극 곤돌메기를 양식한다. 양식한 송어는 직거래로 인근 지역에 판매한다.



1 야외 테이블이 놓인 곳에서 암네리스 부부와 함께 2 회원들에게 귀한 이탈리아 전통 보드카 그리파 술을 내주었다. 3 협회에서 방문 선물로 붉은 백팩, 앞치마, 「슬로매거진달팽이」를 전달했다. 4 가지 송어 요리 중 하나. 3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

3 트렌티노 와인 생산지, 마조마르티스 와이러리

트렌티노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자치 독립 지역이다. 화강암이 융기한 돌로미티 산악지대라 가파른 경작지가 많지만 지역마다 특색 있고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 농산물에 대한 트렌티노 지역 인증 효과도 커서 농업이 중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회원들이 찾아간 와이너리는 1990년대부터 트렌티노 DOC 와인을 생산해왔다. 설립자의 딸 마조와 마르티스의 이름을 딴 마조마르티스 와이너리에서 보낸 시간을 사진에 담았다.



1 와이너리 뒤 발도산(Monte Baldo)의 가파른 경사면에 포도밭이 펼쳐져 있다. 2 마조마르티스 와이너리 와인 저장소를 돌아보는 회원들
3 와이너리 입구 벽면에 DOC 인증서가 빼곡하다.
4 세 가지 종류의 트렌티노 와인을 시음할 수 있었다.



1 한창 벼가 자라는 논 뒤로 밀라노 도심의 아파트가 보인다. 2 벼를 탈곡해서 말리고 저장하는 탱크 3 농가에서는 목초를 먹이며 소를 키운다. 4 농원 내부에 있는 상점. 인근 농가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한다.

4 밀라노 농업공원

밀라노 화려한 도시 중심에서 7km 남짓 떨어진 곳에 1500만 평 규모에 달하는 밀라노 농업공원이 있다. 농업공원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는 60여 곳에 이른다. 밀라노 시민들은 이 농업공원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적극 소비한다. 개발 논리와 경제적 가치에 휘말리지 않고 도시 안에 거대한 농장을 두는 이유는 오늘날 밀라노를 있게 만든 농업의 역사를 잘 이어나가자는 취지다. 농업공원 안에서는 농업의 가치와 도시의 농가 정신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된다. ●



에드워드 무키비 국제슬로푸드협회장의 연설 테라마드레의 미래와 비전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2024.terradresalonedelgusto.com

특히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100만 명이 넘는 활동가와 동맹으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직접 만나 관계를 구축하고 집단행동을 취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테라마드레 아메리카,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덴탈주 바콜로드에서 테라마드레 아시아 & 태평양, 노르웨이에서 테라마드레 노르딕 컨트리 등 지역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라마드레 원주민, 테라마드레 아프리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생태학적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운동인 슬로푸드 농장을 위해 테라마드레 기간 동안 57개국에서 온 250명 이상의 참가자가 역량 강화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해당 지역으로 돌아가 농장을

실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25년 7월까지 1000개의 슬로푸드 농장에 참여하여 지역 슬로푸드 농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을 파괴할 때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한편, 우리가 식품을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방식이 자연을 해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 모두 세계 푸드 시스템의 일원이므로 우리 모두는 행동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2024 테라마드레의 핵심 메시지이며, 전 세계의 다양한 갈등과 지정학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참석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연대를 촉구합니다. ●

‘2024 테라마드레’에 보낸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슬로푸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는 역할

번역 김민수(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이사)

친애하는 자매님들, 친애하는 형제님들,
이번 새로운 테라마드레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특히 음식의 생산과 가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애정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지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 고통과 불의가 점점 더 흔해지는 아픈 세상입니다. 농업은 종종 이윤의 논리에 의해 조작되어 땅을 오염시키고, 노동자를 착취하며, 생물 다양성을 고갈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농업은 노아가 홍수 이후 처음으로 한 활동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로, 그들이 서로 간의 충성과 연대, 약속의 땅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먹을거리를 재배하고 문화를 이어가는 여러분, 자주 간과되는 공동체를 대표하기 위해 지구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생물학적 진화가 자연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후위기의 참혹한 영향을 가장 먼저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재해와 자원 부족뿐만 아니라, 가뭄, 사막화, 더욱 격렬해지는 기상 현상과 자원 부족, 더 나아가 갈등과 그로 인한 이주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구약에서 이미 표현된 중요한 가치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합니다. 여러분의 세계와 공동체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과 걱정하는 점을 경청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다움을 확장시켜주는 폭넓은 시각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의 운명이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라마드레가 큰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대화, 문화 교류, 도전과 해결책의 공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는 보편적 형제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 인류를 공통의 요소로 인식하고, 다양성을 분열의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풍요로움을 주는 것으로 바라보며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의 가치와 적절한 음식 교육은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2019년 범아마존 시노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서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존중하는 교류를 통해, 지구의 ‘생물학적 심장’인 지역에서 3300만 명이 겪는 큰 고통과 폭력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약 250만 명은 원주민으로서, 자주 기술 관료주의와 돈에 기반한 결정을 견뎌야 합니다. 이 시노드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서로 밀

접하게 연결된 모든 요소를 인식하며 통합 생태와 생태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통의 길을 걷는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따라서 음식과 땅의 관계를 건전하게 해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위기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생물 다양성을 수호하고, 삼림 벌채를 멈추며, 낭비를 줄이고, 신재생 자원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평화의 길을 추구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역사적 시기에 매우 긴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테라마드레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함께해온 모든 농부, 목자, 요리사, 어부, 그리고 장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지구의 안녕을 걱정하는 모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선물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는 역할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결단력과 본보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진정한 희망과 중요한 영감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제애를 담아, 프란치스코 ●

※ 편집자주 ‘2024 테라마드레’ 개막식에서 국제슬로푸드협회 감사 아모레 로리가 대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하 메시지는 음식과 땅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슬로푸드 운동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담고 있고, 음식의 가치와 올바른 음식 교육이 보편적 형제애, 다양성 존중으로 나아가는 방법임을 명시한다.

SLOW BOOK REVIEW



책으로 읽는 슬로푸드 ⑪ 『브르통의 걷기 예찬』 너무나 관능적인 세계로 초대합니다

글 김용수(전북 고창지부, 고창백복스 '꾼' 대표) 사진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걷기는 세계를 느끼는 관능에로의 초대다. 걷는다는 것은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돌아온다. 걷은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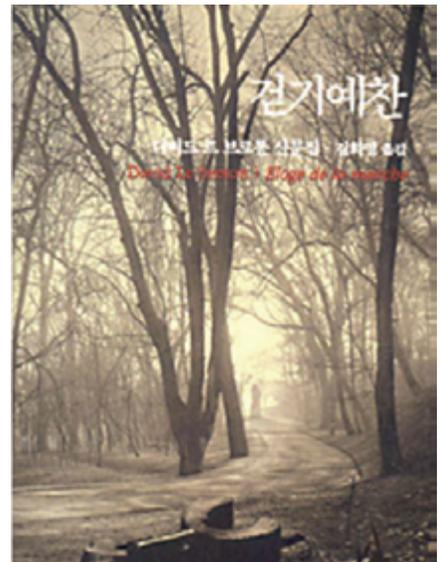
지금 나는 걷고 있다. 맨발로 걷고 있다. 집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시간째 걷고 있다. 나는 물론이고 우리는 걷지 않은 적이 없다. 늘 걸어왔고 걷고 있고 걸을 것이다. 걷는다는 것에는 운동한다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 걷기가 사람들에게 각광 받는 이유는 단지 건강해진다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걷기는 자신을 치유함은 물론 자연과 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걷는 시간은 오로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고 자연을 내 안에 넣은 과정이다. 비교와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걷기의 세계는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게 하는 책이 있다. 『걷기에찬』이다. 이 책은 챕터마다 다섯 쪽에서 열 쪽 정도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걷기와 관련된 생각들, 다양한 방법으로 걷기를 즐기기, 자연이나 도시에서의 걷기, 걷기와 정신적 관계 등을 많은 꼭지의 에세이로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걷는 맛’이라는 챕터에서는 걷기라는 전제에서부터 몸, 상처, 침묵, 노래 부르기, 동물들, 사회를 비껴가는 길, 글로 쓰는 여행 등의 여러 에세이가 있는데 이는 걸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또는 맛에 대해서 쓴 것이다. 이외에도 ‘지평을 걷는 사람들’ ‘도시에서 걷기’ ‘걷기의 정신성’에 대한 챕터에는 더욱 다양한 걷기와 방향성, 걷기 철학에 대한 주옥같은 글이 가득하다.

몸은 무한히 재조정되는 어떤 아이덴티티의 부대사항으로 승격했다. 외관은 가장 밀도 짙은 깊이의 장소가 되었다. 풀 발레리가 말했듯이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 그래서 『걷기에찬』은 삶의 예찬이요 생명의 예찬인 동시에 깊은 인식의 예찬이다. (김화영 '옮긴이의 말' 중)

보행자가 공간을 끝없이 돌아다닐 때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만큼의 대항해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몸은 언제나 인식을 위한 탐사가 진행 중인 어떤 대륙과 비길 만한 것이 된다. 보행자는 전신의 모든 살로써 세계의 두근거리는 박동에 참가한다.(몸, 41쪽)

산책은 걷기의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형식이다. 산책은 규칙적으로, 혹은 사정에 따라 우연히 실천하게 되는 개인적인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혼자 혹은 여럿이서 하는 산책은 숨을 가다듬기 위한, 시간을 길들이고 인간적인 높이에서 지각되는 어떤 세계를 기억하기 위한, 휴식, 말, 혹은 목적 없는 거닐음에로의 고요한 초대다.(산책, 136쪽)

어떤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나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한다. 그들은 도시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사람과 사물을 만나고 상점, 명소, 행정관서, 역의 대합실, 공연장, 카페, 여가를 즐기는 장소 등등과 친해짐으로써 그 도시를 창조하고 그 도시에 생명을 불



『브르통의 걷기 예찬』(다비드 르 브르통 지음, 김화영 옮김, 현대문학 펴냄, 2002년 1월 15일 초판)

어 넣는다.(도시의 몸, 196쪽)

다비드 르 브르통의 걷기에 대한 에세이를 하나씩 읽을 때면 실제로 깊은 울림이 느껴진다. 이러한 울림을 가지고 평소 걸던 나를 바라보고 의미지음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연속해서 읽을 필요는 없다. 한 꼭지씩 읽으면서 매일의 걷기를 되새기고 새롭게 정의하고 내일의 걷기를 계획해보면 즐거움이 더 클 것이다. 저자는 걷기에 대한 백과사전을 쓰거나 걷기의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그것의 인류학을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건강을 위한 걷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걷기를 통해 나와 자연과 세계를 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슬로라이프의 첫걸음은 걷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곁에 두고 틈틈이 읽기를 권한다. ●



든든한 남편과 함께
한우 농장에서

충남 홍성, '농장으로 출근하는 행복한 엄마' 조수영 회원 “키우리~ 키우리~ 잘 키우리~ 노래 불러요”

홍성 장곡면에 사는 조수영 회원은 스스로를 '농장으로 출근하는 행복한 엄마'라고 소개한다.
아이든 작물이든 한우든 무엇이든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키우리~ 키우리~ 잘 키우리~” 노래를 부르며 매일 힘을 낸다.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조수영 회원 제공

Q 우선 홍성에 자리 잡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A 22년 전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따라 홍성에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아버님이 하시던 축사에서 소똥을 치우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소똥을 치우는 일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때부터 분노 문제를 풀어갈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본격적으로 축산인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됐어요. 한우 사양 관리, 한우 계량에 노력하면서 지금은 한우 2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처음엔 남편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한우를 키우고 그 축분을 논밭으로 환원(순환농업)하는 남편을 지켜보며 순환농법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오가며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교육도 받고 하나씩 터득해나갔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대학에 들어가 한우 사양 관리에서부터 송아지 관리, 환경문제(분뇨문제) 교육을 받았어요. 몇 년 전 환경교육에 참석하며 환경문제 중 축산 분뇨의 심각함을 깨닫고는 자료를 찾고 발품을 팔아가며 축산농가를 조사하고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짓는 데 도전했어요. 2020년도부터 계획하고 22년에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지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개소를 못 하다가 얼마 전 마침내 개소했어요. 앞으로 잘 운영해나가야죠.

Q 슬로푸드 운동에 동참한 계기와 이탈리아 테라마드레에서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A 슬로푸드를 알게 된 것은 15년 전이었지만 정식으로 회원이 되고 지부 활동에 적극 참가하게 된 것은 내포지부 덕분입니다. 저는 3남매를 키우는데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9년째 충남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텃밭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 복지원에치료사, 심리치료사 등등 자격증을 따며 농촌체험농장도 하고 있죠. 이번 테라마드레 콘퍼런스 중에서 스쿨 가든 20년 콘퍼런스를 들어봤는데 학교 텃밭과 체험농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슬로푸드 운동의 핵심 중 하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농업으로 잘 사는 나라 이탈리아의 농업 생산지를 방문하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와서 우리 농장에 접목할 것은 무엇인지 부지런히 메모했어요. 특히 밀라노 도시 농업공원에서 축사를 공개해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내부에 상점



1 잘 지라준 보석 같은 3남매와 함께 2 한복을 입고 이탈리아에서 최고 인기를 끌었던 조수영 회원 3 텃밭 교육 과정 중 치매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을 뒤서 유기농산물과 축산가공품을 파는 것,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 이번 테라마드레에서 접한 농생태학은 자연, 문화, 인간, 동물, 생산자, 소비자, 환경 간의 건강한 연관 고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슬로푸드 운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노력을 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에 다녀와 너무 좋고 흔쾌히 다녀오라고 용기를 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Q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A 저는 지금 청운대 서비스대학 사회적기업학과에 다녀요. 농사와 회사 등 역할이 많은데 대학에 가는 것은 큰 결심이었어요. 남편의 응원 공부하는 엄마를 믿어주는 아이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대학에서 세무회계, 경영, 사업관리, 조직관리, 행정관리를 배우는데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가 생기면 교수님과 자주 상담하는데 제가 송아지 사양 관리를 하면서 송아지 옷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을 때 교수님의 지지를 얻었어요. 버려지는 폐자재(소방관복이나 군복)를 활용한 송아지 옷을 만들어보면 우리 아이들 꼬까옷을 입혀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작년 겨울에 여성 축산농가인들과 송아지 옷 만드는 동아리를 만들어 그분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데 송아지 옷은 꼭 창업으로 이어나갈 결심입니다.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잘 헤쳐 나가려고요. 홍성의 장곡에서 소소한 일상을 살며 자연의 한가로움, 세계철의 즐거움을 즐기는 한우 부부(3대 소띠 일가-시어머니, 소띠 부부, 소띠 아들)의 농업 실천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



된장 만드는 농부 한약사, 문봉준 회원 “약보다는 음식으로 건강을 선사합니다”

문봉준 회원은 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하고 광주에서 한약국을 운영했다. 대장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 발효 된장과 음식으로 장기간 치료했더니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더 좋다는 것을 체득했다고. 그래서 고향 제주에서 어머니가 만들던 된장의 기억을 소환해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다.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문봉준 회원 제공



Q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A 지금은 종자원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2010년 초반 전국적으로 보급 되었던 우람콩을 직접 재배하고 우람콩으로 된장 만드는 일을 13년째 하고 있어요. ‘문가네된장 기술 고문’이 제 직함입니다. 3년 전 국립농수산대를 졸업한 작은아들과 전남 장성에 메주공장과 건조장을 건립 했어요. 우리 공장에서는 간장을 따로 뽑지 않고 그대로 3년을 숙성 시켜서 향이 깊은 된장을 만듭니다. 지인의 권유로 슬로푸드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슬로푸드 철학이 딱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회원 중에 콩을 재배하는 분, 장을 만드는 분이 많아서 이분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과 연대하면 서로 도움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으니까요. 앞으로도 협회에서 이런 연대 협력의 소통 창구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Q 테라마드레에서 주목했던 것과 우리나라에 투영할 만한 것은 무엇 일까요?

A 테라마드레에 참석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있는 유서 깊은 와인, 치즈, 제빵 공장을 둘러보며 수백 년 대를 잇는 슬로푸드 전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후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친환경 자연 먹거리들을 생산하는 동안 시간이 축적한 경험과 지혜가 음식에 발현되는 것을 보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넉넉해지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슬로푸드 여행을 꼭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한편 우리에게도 전통 장을 비롯한 각종 산나물과 해초를 이용한 여러 형태의 슬로푸드가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해서 다음 테라마드레에서는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맛을 보이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Q 슬로푸드 운동을 하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A 슬로푸드라는 이름이 붙는 먹을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건강에 이점이 많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슬로푸드를 재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과정까지 인간에게 건강한 노동과 정신적 위안을 주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시니어가 되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는 열망을 안고 있는지라 이분들에게 슬로푸드 전도사가 되어보려 합니다. 슬로푸드가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는 사례를 모으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학문적 연구 성과도 꾸준히 모아서 많은 이들에게 슬로푸드 운동이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일임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저부터 슬로푸드 운동을 실천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어야겠죠!●

1 돌로미티 초원에 있는 문봉준 회원 2 전남 장성에 만든 문가네 된장 메주 건조장

3 프랑스 여행에서 만난 유기농 발효종 빵

오늘도 우리는 슬로푸드

전국이 지역 축제로 들썩였다. 요즘 조명을 받는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이다.
지역축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내용들로 채워지길 바란다.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각 지부 및 회원 제공



13일간의 강의를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단체사진 촬영 2 마무리 발표를 하는 손정희 내포지부장 3 수강생들이 한 가지씩 만들어진 요리로 차린 점심

홍동 미각교육 강사 양성 과정

우리 협회에서는 10월 5,6,9일 3일간 충남 홍동 마을 활력소에서 홍성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주최로 슬로푸드 미각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홍성군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시민,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바라는 생산자, 슬로푸드 매니저로 음식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3일간 20시간 진행되는 강도 높은 과정이었지만 수강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높고 후속 심화 과정 개설도 희망했다. 수료식을 축하하러 온 협회 김영숙 이사(토종씨앗박물관장)는 농촌에서 여성은 농사와 가족 돌봄은 물론이고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주인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성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격려했다.

2 담양지부, '차 마시는 대한민국' 릴레이 캠페인

담양지부(곽경자 지부장)는 지난 10월 12일에 '차 마시는 사회' 캠페인을 '조리하는 대한민국' 릴레이 캠페인 활동으로 진행했다. ●



1 캠페인에 참석한 담양지부 회원들 2 꽃차를 두고 있는 곽경자 지부장

여수의 맛 남도의 맛 한국의 맛



2026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와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2024 전남여수 슬로푸드축제



초대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기간 중
'2026 국제슬로푸드 총회'를 여수에 유치하여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의 계기로 삼아
남도과 여수 음식 등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4.(목) ~ 15.(금)
여수세계박람회장 그랜드홀·오동재

14일(목) | 개회식(14:00)·포럼·맛워크숍 15일(금) | 맛워크숍

슬로푸드회원특가

달팽이 매거진
연 구독 할인

연 구독 18만원에서 15만원으로
20% 할인되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슬로푸드회원만 특별히!!
문의전화는 협회로
입금과 배송은 최영미 회원

02-737-1665

슬로푸드 회원이되면 멋진세상이..

슬로푸드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의 자랑스런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님들이 내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소멸위기의 종자 및 음식 유산을 지키는 맛의방주 발굴 및 등재
- 슬로푸드 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어머니인 땅" 워크숍
- 슬로푸드 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슬로푸드축제 참가 및 개최
- 유전자조작식재료(GMO) 반대
- 지속가능한 어업을 지키는 슬로피시 운동
- 조리로 농업과 건강, 식문화를 지키는 "조리하는대한민국" 캠페인
- 콩 유전자원 보전과 자급 실현을 위한 "콩의나라대한민국" 캠페인
- 공장식 축산 육제품 대신, 적게 먹되 제대로 된 고기를 먹자는 "슬로미트" 운동
- 우리 차의 소중함을 느끼고 차생산자를 돕는 "차마시는 사회" 캠페인
- 지역의 음식 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슬로푸드집밥리더" 양성
- 음식 독서, 공동부엌, 토종씨앗 보전, 생산자 격려 등 지역별 지부 및 커뮤니티 육성

슬로푸드 회원이 되시면 위와 같은 일을 지원하는 외에도 160개국의 슬로푸드 회원들과의 연대 안에서 지구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슬로푸드 공동생산자가 되어 먹을거리의 기본인 농업, 땅, 가족농, 종자를 지킵니다. 또한 슬로푸드 지부나 커뮤니티와 함께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벤트도 열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09월~2024년10월 슬로푸드후원 (정기회비납부자)명단

(사)가배울(대표김정민)/전남강진, 푸른콩방주(대표김민수)/제주, (주)도담(대표이원영/슬로푸드친구들)/충북청주, (주)뜰과숲(대표권춘희) 서울강남, (주)물과산소(대표우병렬)경기김포, (주)쁘리마쥬(대표오진수/슬로푸드친구들)/경기안양, (주)생태미식연구소(대표남윤미)/경기여주, (주)선농생활(대표신동수)경기양평, (주)제주마미(대표김정옥)/제주, (주)초정(대표정인숙)/전남곡성, John Kenneth Lee/전남장흥, NIINUMA CHIKA/서울마포, 강경갑/부산광역시, 강경석/제주도, 강경우/전남고흥, 강구열/경북예천, 강대욱/경남거창, 강라희/광주광역시, 강미경/ 충남 논산, 강민규/울산광역시, 강병규/전북남원, 강서영/제주, 강석찬/경기화성, 강성일/제주, 강순아/서울서초, 강순임/전남담양, 강양숙/제주, 강영수/대구광역시, 강영주/충남서천, 강은미/전북김제, 강은주/경기양주, 강장원/경기안양, 강주남/제주, 강지윤/전북고창, 강창건/제주, 강혜련/충남예산, 행복빛는떡시루(대표강혜진)/전북군산, 강화경/전남담양, 강희숙/경기파주, 강희진/충남예산, 경소정/경기남양주, 경지현/서울강남, 고민주/충북청주, 고성광/경기고양, 고승희/서울마포, 고양찬우물농장/경기고양, 고양/경기화성, 고양희/제주,

고영희/제주, 고옥희/경기파주, 고용준/제주, 고운/서울마포, 고은정/제주, 고은정/전북남원, 고인정/경기평택, 고재섭/경북영양, 고점석/전북부안, 고지현/서울용산, 고현미/경기남양주, 고현준/제주, 고화순/경기남양주, 공항숙/전남광양, 곽경자/전남담양, 곽미경/전남담양, 곽민선/서울강남, 곽선미/서울용산, 곽순자/전남담양, 곽여경/전남여수, 곽주홍/경남김해, 구본일/경기파주, 구자운/충남예산, 국영주/강원홍천, 권미연/경기부천, 권성원/서울은평, 권승희/경기고양, 권연숙/경북울릉, 권오열/세종시, 권용덕/경기고양, 권용인/강원홍천, 권윤희/서울종로, 권은민/서울종로, 권인옥/서울강북, 권재영/미지정, 권찬중/경북울릉, 권태훈/대전광역시, 권향숙/경기파주, 권혜경/충남아산, 권화조/경북울릉, 권효숙/서울서초, 규반(대표)/서울 중구, 금경연/경기화성, 기여은/서울종로, 기중서/제주, 김경란/서울도봉, 김경숙/전남장흥, 김경숙/서울은평, 김경아/경기부천, 김경자/전남담양, 김경환/경기고양, 김경희/서울성동, 김경희/충남예산, 김경희/서울성북, 김경희/경기의정부, 김계숙/경북울릉, 김계향/전남담양, 김관숙/전북완주, 김관영/전북군산, 김관호/충남서산, 김광옥/광주광역시, 김광태/경북고성, 김귀임/광주광역시, 김금옥/경기남양주, 김기라/전남광주, 김기열/서울영등포, 김나경/부산, 김나영/서울종로, 김나현/경남하동, 김나희/경북울릉, 김다솔/경기파주, 김대수/서울성북, 김덕일/경기평택, 김도원/제주, 김도윤/경북울릉, 김동관/전남고흥, 김동숙/경기파주, 김동우/경기오산, 김동자/경북울릉, 김동환/충남논산, 김명미/서울관악, 김명숙/경북울릉, 김명숙/경기용인, 김명애/경북울릉, 김명희/서울노원, 김명희/충남홍성, 김명희/경기양주, 김미경/광주광역시, 김미나/부산광역시, 김미득/경남창원, 김미라/전남완도, 김미숙/서울마포, 김미숙/서울강서, 김미연/충남청양, 김미영/경기파주, 김미자/전남순천, 김미진/광주광역시, 김미희/경남하동, 김민영/경기남양주, 김민정/광주광역시, 김민정/경북울릉, 김민호/경기광주, 김민희/제주시, 김병기/서울서초, 김병수/경북울릉, 김보람/서울노원, 김복남/경북울진, 김복희/광주광역시, 김부미/서울서초, 김상/서울 동대문, 김상권/경기화성, 김상기/경기파주, 김상범/전남무안, 김상하/, 김상희/경기파주, 김생기/서울강남, 김서원/경기파주, 김석순/경기고양, 김선란/전남순천, 김선영/충남예산, 김선유/서울동대문, 김선화/경북울릉, 김선희/전남무안, 김선희/부산광역시, 김성윤/경기남양주, 김성은/전북부안, 김성일/충북청주, 김성현/전남목포, 김성훈/경기평택, 김성희/서울서초, 김소연/경기평택, 김송희/전북고창, 김수남/전북고창, 김수미/경남고성, 김수미/경기의정부, 김수연/전북고창, 김수영/경기수원, 김수진/서울구로, 김수하/경남밀양, 김수현/경기화성, 김숙정/전북전주, 김숙희/전남담양, 김순주/경북울릉, 김순향/전남여수, 김순화/경북울릉, 김승준/서울용산, 김승환/경북울릉, 김아윤/슬로청춘, 김여진/전북전주, 김연주/충남서산, 김연태/서울관악, 김영경/경기여주, 김영금/경기파주, 김영남/경북울릉, 김영란/충북제천, 김영란/전남신안, 김영림/서울관악, 김영림/서울동작, 김영미/서울성북, 김영미/전북고창, 김영숙/충남예산, 김영숙/전북고창, 김영순/경기파주, 김영식/세종, 김영신/전남완도, 김영애/경기양주, 김영애/광주광역시, 김영옥/전남화순, 김영주/서울강남, 김영택/전북익산, 김영향/서울구로, 김영희/전남담양, 김예성/서울강남, 김옥분/충남홍성, 김옥분/경북울릉, 김옥선/서울송파, 김옥선/경북울릉, 김옥용/경북울릉, 김완섭/경북안동, 김용수/전북고창, 김용훈/전남담양, 김원봉/경기여주, 김원일/서울종로, 김원형/경기남양주, 김유나/서울용산, 김유신/서울은평, 김윤미/경기남양주, 김윤배

/경북울릉, 김윤정/서울성북, 김윤주/경기양평, 김은경/전북익산, 김은규/전남강진, 김은성/전북고창, 김은숙/서울중구, 김은숙/경기양주, 김은숙/광주광역시, 김은아/경북울릉, 김은영/경기의정부, 김은주/전남여수, 김은혜/경기양평, 김익현/경기의정부, 김인수/전남곡성, 김인숙/서울서초, 김인순/전북전주, 김인자/경기파주, 김자현/서울관악, 김재광/경기고양, 김정규/경기김포, 김정수/서울동작, 김정수/경기파주, 김정아/제주, 김정애/경북울릉, 김정애/부산해운대, 김정열/제주, 김정옥/경북울릉, 김정자/경기양주, 김정화/경기의정부, 김정희/전남여수, 김종덕/서울동작, 김종애/충북충주, 김종철/제주, 김종화/강원철원, 김주덕/제주, 김주연/전북부안, 김주희/서울동대문, 김준/전남고흥, 김지영/경기안산, 김진만/대전광역시, 김진수/전남여수, 김진욱/경기화성, 김진주/전북전주, 김진태/전남고흥, 김찬주/경기시흥, 김채옥/서울동대문, 김채윤/경북예천, 김채윤/전북전주, 김추자/전남여수, 김춘교/경기부천, 김춘성/경기하남, 김충구/충남천안, 김태분/경북울릉, 김태철/경기성남, 김태훈/전북전주, 김하경/서울동작, 김하나/전남강진, 김학현/경기파주, 김현곤/전북진안, 김현규/전북군산, 김현미/경북울릉, 김현석/서울시중구, 김현숙/경기이천, 김현숙/경기김포, 김현숙/경기의정부, 김현순/서울은평, 김현옥/경북울릉, 김현옥/경기부천, 김형순/경기고양, 김형애/충남예산, 김혜경/전북남원, 김혜란/서울종로, 김혜숙/강원강릉, 김혜정/서울강서, 김홍기/충남예산, 김희은/충남홍성, 김희명/전북군산, 김희섭/경기하남, 김희순/전북군산(정담순대), 김희영/ 김희재/부산광역시, 나경희/전북고창, 나상분/인천강화, 나예주발효/경남거창, 나혜리/경기남양주, 남선녀/전남여수, 남은주/경기안성, 남정희/경북울릉, 남창우/전남순천, 남한권/경북울릉, 노국환/경기양평, 노미경/경기여주, 노민영/서울종로, 노영도/경남창원, 농업회사법인 농부생각(대표김동완)/충남아산, 농업회사법인울릉독도팜(주), 느린세상영농조합법인(대표김갑남)/경북상주, 다정농원(대표심복남)/경북성주, 도덕현/전북고창, 라연화/경기고양, 라포르하레/제주, 라호채/전북무주, 류경옥/광주광역시, 류명주/광주광역시, 류정기/경기고양, 류춘자/경기고양, 르도혜/부산광역시, 마경희/경북울릉, 마행덕/충북청주, 문명숙/경북울릉, 문봉준/전남장성, 문서정/경기수원, 문성수/경기파주, 문성희/전남구례, 문순자/경북울릉, 문오권/광주광역시, 문유숙/서울은평, 문재형/경기하남, 문지영/서울은평, 민경윤/경기용인, 민진욱/서울동대문, 바른식습관연구소(대표김아람)/경기광명, 박경아/경기남양주, 박경희/경기파주, 박광철/전북전주, 박기호/경북울릉, 박난실/전남여수, 박남옥/전남여수, 박덕수/경북울릉, 박도희(박소연)/경기양평, 박동근/서울양천, 박동금/전북완주, 박동우/서울마포, 박래훈/경기화성, 박만희/광주광역시, 박명선/경기파주, 박미경/경남함양, 박미자/충남홍성, 박미현/경기고양, 박민숙/광주광역시, 박민제/경기양평, 박상미/서울종로, 박상일/전남해남, 박서필/캄보디아, 박석희/서울동작, 박선홍/전남여수, 박성미/전남여수, 박성숙/독일, 박성자/경기평택, 박성춘/전남신안, 박성혜/경기광주, 박세정/서울양천, 박수진/전북부안, 박순옥/ , 박순덕/경북울릉, 박애경/경기양평, 박연주/경기파주, 박영미/서울종로, 박영애/강원홍천, 박영재/경기수원, 박영희/제주, 박영희/경북울릉, 박용수/경북울릉, 박은서/충남예산, 박이현/전남고흥, 박인숙/전남 담양, 박일두/전북전주, 박재원/서울강남, 박재현/미지정, 박정실/서울용산, 박정애/경북울릉, 박정욱/경기안양, 박정희/서울은평, 박종숙/경기이천, 박종일/서울강서, 박진숙/경기고양, 박진희/전북장수, 박진희/경기수원, 박찬영/서울관악, 박창규/전남담양,

박태식/전남담양, 박한주/경기양주, 박현순/경기여주, 박현진/서울송파, 박형주/전북순창,, 박홍균/전남신안, 박희옥/서울종로, 반기민/충북청주, 배경선/경기안양, 배경연/경기파주, 배덕희/전북진안, 배연하/전남고흥, 배영혜/경기화성, 배옥례/광주광역시, 배재희/전남영암, 배정숙/충남논산, 배형우/경기시흥, 백관실/경남진주, 백광빈/경기평택, 백수환/광주광역시, 변경숙/서울송파, 변 산노을/경기양평, 변옥분/경북울릉, 변은숙/제주, 변인화/서울영등포, 봉밀가평양냉면/서울강남, 부명미/경기파주, 부정숙/제주, 사랑의 손힐링리더스/광주광역시, 서동현/경기고양, 서수진/경북울릉, 서은경/충남예산, 서종호/대구광역시, 서주희/전북군산, 서해용/충북청주, 서희주/경기파주, 선정우/경기성남, 성길현/경기고양, 성명순/.경기수원, 성선희/서울강남, 성세아/경기시흥, 성용호/서울서초, 성점숙/전남함평, 성정민/경기성남, 성현주/경기옥천, 소인경/경남통영, 소혜순/경기남양주, 손금숙/서울광진, 손덕식/전북정읍, 손미숙/서울서대문, 손영숙/강원철원, 손영신/경북경산, 손영욱/서울서초, 손영자/전남화순, 손용원/경북울진, 손은아/전남담양, 손정숙/경북울릉, 손정희/충남홍성, 손철수/서울성동, 손혜연/서울송파, 손화자/경북울릉, 송관용/서울서초, 송기희/광주광역시, 송동흙/서울서대문, 송명순/전남담양, 송미경/경북울릉, 송미경/경기성남, 송미령/전북전주, 송미화/경북울릉, 송서윤/대전광역시, 송수연/경북안동, 송영희/경기양평, 송장혁/전남담양, 송정숙/경기파주, 송주희/경기광주, 송지은/경기양주, 송진선/부산직할시, 송태경/전북진안, 송혜민/경기남양주, 시드컴퍼니언니네(대표 박정록)/경북영주, 신경남/전남고흥, 신동집/인천강화, 신동환/서울영등포, 신미경/전남여수 신미경/경기양평, 신미정/전북순창, 신상천/충남서천, 신서하/서울강남, 신소영/서울관악, 신수경/서울동대문, 신영규/경남김해, 신용조/충남홍성, 신유리/서울강북, 신은희/경북대구, 신일현/경기포천, 신재숙/전북고창, 신종암/전남여수, 신현숙/경기고양, 신형숙/전남담양, 신형식/경기남양주, 신혜경/경기부천, 신호림/서울동작, 심상옥/서울종로, 심온/경기구리, 심재경/전남완도, 심재용/서울중구, 심찬/서울강남, 안기영/경기양주, 안덕준/서울은평, 안란/광주광역시, 안병권/전북김제, 안성민/전북고창, 안세희/경기남양주, 안소연/서울강남, 안수복/경북포항, 안수영/경기양평, 안승문/경기고양, 안승화/서울강남, 안완배/경기양평, 안완식/경기수원, 안윤자/광주광역시, 안일국/서울은평, 안재명/전남담양, 안정순/경기고양, 안종욱/경북울릉, 안종운/서울서초, 안창호/서울강북, 안현숙/ 경기파주, 안혜경/전남순천, 양말년/경북울릉, 양문실/제주, 양미순/경북예천, 양성오/경남창원, 양소영/전남여수, 양옥경/전북전주, 양인자/경기광명, 양정미/경북울릉, 양정철/제주, 양종천/강원춘천, 양차심/충남보령, 양향숙/전북완주, 양혜숙/제주, 양희은/경기의정부, 양희정/서울송파, 어프로젝트(대표천재박)/경기파주, 언리밋테이블(대표김해영)/서울강서, 엄지선/ , 여수미미협동조합/전남여수, 엄희순/대구광역시, 여애숙/경북울릉, 오동엽/경북청도, 오미경/전북전주, 오석환/전북익산, 오성표/전남고흥, 오승희/전북완주, 오연숙/제주, 오영상/전남여수, 오용균/서울송파, 오용준/서울송파, 오원희/인천강화, 오인숙/제주, 오정선/경기광주, 오정하/전남담양, 오테숙/경북울릉, 올바른편식/광주광역시, 우석영/경기고양, 우선화/경기파주, 우영선/미지정, 우호창/경기가평, 원승현/강원영월, 유경/전북김제, 유경숙/서울노원, 유경순/서울강북, 유귀숙/서울동작, 유기상/전북고창, 유정길/경기고양, 유미호/서울구로, 유선금/서울서대문구, 유성경/경기수원, 유성훈/전북부안, 유수현(카펜트리)슬로프렌즈 /경

기남양주, 유승현/경기남양주, 유시현/경기남양주, 유신정/서울서초, 유영아/전남고흥, 유은의/경기김포, 유은숙/전남담양, 유일순/충남서산, 유일화/경북울릉, 유재성/강원영월, 유정희(고천마실)/경북포항, 유종철/경기수원, 유창우(카펜트리)/경기남양주, 유채진/경기여주, 유춘영/전남담양, 유춘자/전북순창, 유현주/서울서초, 유혜선/충북청주, 유홍림/프랑스, 유황순/경기양주, 육주희/서울관악, 윤가비채/광주광역시, 윤경림/서울관악, 윤경숙/충남서산, 윤광미/경기고양, 윤광희/경기광명, 윤대근/전남나주, 윤대식/전남강진, 윤매숙/경북울릉, 윤병구/전남함평, 윤상미/서울서대문, 윤석진/경기포천, 윤성호/경남창원, 윤성희/충북청주, 윤신애/서울은평, 윤아영(레스토랑오와이)/서울강남, 윤영실레시피/경기파주, 윤영철/경북울릉, 윤유경/서울동작, 윤일/전북전주, 윤재영/서울강남, 윤정욱/충남논산, 윤종민/전남여수, 윤하영/대전광역시, 이강백/경기고양, 이강삼/경남하동, 이강식/경기화성, 이강민/전남담양, 이경숙/경기양주, 이경숙/경기파주, 이경애/경북울릉, 이경우/경기양평, 이경이/경기양평, 이경자/충남홍성, 이경태/경북울릉, 이경희/경북울릉, 이광빈/제주, 이광영/경기파주, 이광진/경기용인, 이광진(일산애)/경기고양, 이귀임/전남영광, 이귀조/경북울릉, 이규현/전남담양, 이근왕/경남하동, 이근혜/종로, 이금선/경북울릉, 이기동/서울송파, 이기호/전북부안, 이길순/광주광역시, 이나금/경기파주, 이남숙/경기파주, 이다감/경기포천, 이대건/전북고창, 이덕주/경남하동, 이덕준/경북울릉, 이도경/경기파주, 이동건/경기수원, 이동선/경기용인, 이동일/경기용인, 이두열/경기김포, 이명/서울강남, 이명숙/대전광역시, 이명숙/경북울릉, 이명용/충남청양, 이명주/경기김포, 이명희/서울용산, 이문봉/경기안양, 이미덕/강원횡성, 이미우/경기양주, 이미정/전북군산, 이민/제주, 이민영/경기양주, 이민우/충남보령, 이민일/경기파주, 이민형/경기고양, 이보은/서울구로, 이보향/서울도봉, 이보희/경기과천, 이봉자/경북울릉, 이부경/경기남양주, 이빈파/서울성북, 이상관/경기광주, 이상미/전남담양, 이상배/경기화성, 이상익/서울종로, 이상행/서울용산, 이상헌/경북울릉, 이상훈/경기평택, 이상희/제주, 이상희/경남통영, 이석영/경기수원, 이선심/광주광역시, 이선진/인천광역시, 이성철/부산광역시, 이세훈/경기양평, 이수경/서울강동, 이수연/경기성남, 이수진/서울성북, 이숙연/서울동작, 이숙희/경남창원, 이순규/경기남양주, 이순득/경기용인, 이순애/경북울릉, 이순원/서울서초, 이순자/경북울릉, 이승길/전남완도, 이승숙/충남논산, 이승창/전남완도, 이승현/서울종로, 이승희/전남해남, 이승희/경기평택, 이애란/충남홍성, 이연례/전남순천, 이연수/서울송파, 이영성/서울종로, 이영숙/충남예산, 이영숙/충북청주, 이영실/경북울릉, 이영아/전남담양, 이영희/경기수원, 이예숙/전남담양, 이옥순/서울양천, 이옥희/경북경주, 이용숙/경기수원, 이용원/경기여주, 이용이/전북군산, 이우숙/경기부천, 이원로/경기성남, 이원영/경기하남, 이원자/경기여주, 이윤선/제주, 이윤숙/광주광역시, 이윤철/강원영월, 이은경/광주광역시, 이은미/대구광역시, 이은선/서울강남, 이은실/강북포항, 이은혜/충남공주, 이자영/경기양평, 이재덕/서울강남, 이재선/경기양주, 이재영/충남계룡, 이재용/경기화성, 이재현/충북보은, 이재훈/대구광역시, 이정숙/충남예산, 이정숙/전북정읍, 이정숙/대전광역시, 이정아/제주, 이정아/경남하동, 이정아/광주광역시, 이정원/전남담양, 이정자/서울종로, 이정직/미지정, 이정호/강원원주, 이정화/전남담양, 이종진/전북전주, 이주연/서울용산, 이주해/전북임실, 이준섭/제주, 이준호/전북고창, 이중배(이시랑)/경기수원, 이지순/경기양평, 이지영/제주, 이지현/경기남양주,

이지형/경북경산, 이진영/전북전주, 이진오/경북울릉, 이진형/경남진주, 이진희/서울동작, 이창희/경기양평, 이춘자/경북울릉, 이해숙/충남홍성, 이현/경북경산, 이현숙/충북청주, 이현영/전남여수, 이현정/경기여주, 이현종/경기고양, 이해경/서울성동, 이해정/경북포항, 이호진/경기김포, 이희운/전남장흥, 임명검/충남보령, 임미선/경기양평, 임상채/경기파주, 임서형/제주, 임선자/경북울릉, 임연숙/전남장흥, 임영수/경기고양, 임영혜/충북영동, 임인환/경기양평, 임장옥/전북정읍, 임창덕/경기구리, 임태인/광주광역시, 임헌문/경북봉화, 임현/경기과천, 임현주/전남완도, 임현진/서울영등포, 임혜주/제주, 임희연/광주광역시, 장경순/서울중구, 장경식/서울마포, 장나영/경기의정부, 장내순/전남장흥, 장대석/경기성남, 장명숙(신순규)/실미원, 장미향/경기포천, 장수찬/경기화성, 장승영/경기광주, 장승희/경기사흥, 장영기/ , 장영숙/경기파주, 장영주/서울은평, 장영춘/서울성북, 장유경/서울강남, 장유성/부산광역시, 장은숙/경남양산, 장주연/경기고양, 장중연/전남목포, 장지영/전남무안, 장진호/서울마포, 장하늬/서울마포, 장한/인천광역시, 장현남/서울동대문, 장현순/경기파주, 장현예/경기남양주, 전계운/전북고창, 전미옥/경기양주, 전민석/경기남양주, 전병덕/경기수원, 전병성/경기파주, 전성희/경북안동, 전송자/경기파주, 전은순/경기파주, 전인옥/경북구미, 전형광/충남공주, 전효원/대구광역시, 정갑순/경기광명, 정관스님/전남장성, 정규화/경남진주, 정금자/경기파주, 정금철/전북부안, 정남숙/전남담양, 정대휘/경북울릉, 정명성/전북정읍, 정미선/서울서대문, 정미영/경기파주, 정병남/전남고흥, 정병수/광주광역시, 정봉희/서울용산, 정상신/이탈리아, 정상옥/충남홍성, 정상택/광주광역시, 정순덕/경기파주, 정순옥/경기양주, 정안숙/전남담양, 정연숙/경기수원, 정연주/경기양평, 정영숙/경기양평, 정영숙/충남보령, 정영호/전남무안, 정용효/경북울릉, 정운교/충북음성, 정은상/경남창원, 정은정/전북부안, 정은하/경기남양주, 정인숙/전남여수, 정일심/경기양주, 정점숙/경기남양주, 정정기/경기파주, 정정연/경북울릉, 정정하/서울종로, 정제민/충남예산, 정진순/전북고창, 정진영/제주, 정진화/서울은평, 정태남/전남담양, 정해경/충남예산, 정향자/충남홍성, 정혁미/ 정현자/전남여수, 정현주/전남여수, 정현진/경북울진, 정현창/경기양평, 정혜경/경기고양, 정혜윤/인천광역시, 정호진(자르디미농)/경북구미, 정효화/전남화순, 정희정/전남무안, 조경신/전북전주, 조수영/충남홍성, 조순영/전남광양, 조연원/충남예산, 조영현/전남장흥, 조완석/경기용인, 조용란/경기파주, 조원실/경기고양, 조윤심/전북익산, 조은진/전북정읍, 조은희/경북경주, 조이스/경북울릉, 조정/경기고양, 조정환/경기화성, 조중기/강원철원, 조창범/제주, 조철/전북진안, 조태경/서울종로, 조향순/전남순천, 조혜원/서울서대문, 조희경/경기파주, 주권기/광주광역시, 주귀연/인천광역시, 주대중/전북군산, (주)서스테이블/서울동작, (주)옥텟/서울강남, 주연섭/경북문경, 주영하/경기성남, 주은옥/전남여수, 주형로/충남홍성, 주형미/경기부천, 주희진/광주광역시, 지윤진(피코서울)/서울사직, 지은주/서울서초, 진미령/경남창원, 진인희/미지정, 진태민/제주, 찐누룩발효공방/서울강서, 차나무뱅크/경기용인, 차명옥/전북전주. 차미경/광주광역시, 차정단/전북진안, 채점석/제주, 채지애/제주, 천정자/전남장흥, 천지연/전남순천, 천호균/경기파주, 최근태/충북옥천, 최낙전/경기양평, 최돈익/서울강남, 최득수/충북단양, 최말희/경북울릉, 최미자/서울노원, 최병호/서울강남, 최삼남/전북부안, 최상숙/충남홍성, 최선미/광주광역시, 최성희/서울은평, 최송아/경기고양, 최숙자/전남고흥, 최승철/경기안양, 최식림/

경남산청, 최양숙/경기파주, 최영미/서울성북, 최영숙/경남창원, 최영숙/경북울릉, 최용범/전남구례, 최윤경/서울중랑, 최윤수/경기여주, 최윤수/경기여주, 최윤희/서울영등포, 최은숙/경기김포, 최은영/경기고양, 최장희/대전광역시, 최재덕/경기여주, 최정민/대구, 최정분/경기파주, 최정현/경기성남, 최정희/경기양주, 최종현/경기수원, 최종호/경기양평, 최주현/부산광역시, 최준표/경기수원, 최준호/서울용산, 최지영/서울강남, 최철/경기연천, 최춘경/전북전주, 최춘화/전남담양, 최학순/충북청주, 최후경/전남여수, 최희철/경기수원, 추민아/광주광역시, 추승민/서울관악, 템마이오/경기의왕, 하늘농가/슬로푸드친구들(고화순)/경기남양주, 하완기/경남거창, 하진석/경기고양, 한갑수/서울노원, 한귀숙/경북울릉, 한기남/전남구례, 한대수/경남거창, 한도연/전남담양, 한도현/경기성남, 한명구/서울중구, 한복려/서울종로,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경기포천, 한상준/경북예천, 한선이/전남담양, 한성천/경남하동, 한소희/전남여수, 한얼영농조합법인/슬로푸드친구들(대표김원봉)/경기여주, 한영수/경기양평, 한외자/경북울릉, 한우석/슬로청춘, 한은희/경기남양주, 한정심/전북군산, 한주희/경기파주, 한창본/전남장흥, 한태림/전남순천, 한해광/전남여수, 허운/경남산청, 허경희/서울강남, 허기순/경기가평, 허선혜/ 허순연/경북울릉, 허정희/경기파주, 허태원/전남여수, 허향순/제주, 허훈/경기포천, 현금지/경기남양주, 현길아/제주, 현은주/경기남양주, 현종영/서울강남, 현혜인/경기수원, 홍경량/제주, 협동조합아우내공동체/ 홍광표/경기화성, 홍미라/경기하남, 홍선희/서울성북, 홍수민/충남홍성, 홍순미/서울은평, 현인농원(대표홍승갑)/경기파주, 홍양현/전남나주, 홍여신/전남강진, 홍은화/경기수원, 홍정아/부산광역시, 홍천기/서울영등포, 홍철표/경기양주, 홍혜영/대전광역시, 황기순/전남영양, 황길자/전북김제, 황보순자/경기여주, 황순임/충남서산, 황종환/전남나주, 황진웅/충남공주, 황태연/전남담양, 황현화/전북군산, 황효숙/경북울릉, 황요정/경북울릉, 효덕목장(대표이선애)/충남천안, (이상1,070명)